

세계의 여성운동 · 독일 ①

토마토 세레는 축복이었다

68년 학생혁명 기점으로 여성운동 본격화

이수자/프랑크푸르트대학 사회대 박사과정)

독일의 여성운동은 크게 ① 자율적 소규모 집단에 의한 구체적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 ② 여성 연합체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 ③ 정당의 여성분과를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현대의 여성운동은 68학생혁명 이후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소그룹에 의한 '자율적 여성운동'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앞으로 이 지면은 ① 토마토 세레는 축복이었다 : 60년대까지의 독일여성운동(이번 호) ②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투쟁과 논쟁 ③ 탁아소, 유치원의 확대와 국민학교 종일반 설치 요구 ④ 남성폭력에의 대응 : 여성의 집 ⑤ 시민당과 녹색당의 여성정책 순으로 연재될 예정이다.

독일의 여성운동은 68년의 학생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고유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본격적인 여성운동으로 성장한다. 독일은 클라라 제트킨, 로자 룩셈부르크, 헤르빅 뚸 등 유명한 여성운동가들을 가진 나라이지만 본격적인 여성운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양차대전과 나치시대의 어두운 그늘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1849년, '여성신문' 생겨

독일여성운동의 시초는 독일 시민혁명 한해 후인 1849년 루이제 오토-페터스가 창간한 <여성신문(Frauen Zeitung)>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던 노동계급 여성들은 산업화와 함께 하루 9시간에서 12시간씩 기아 임금을 받으며 일해야 했고 시민중간계급 여성들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었다. 또 미혼여성들도 직업을 가져야 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변화는 <여성신문(Frauen Zeitung)>에서 여성과 남성의 법앞에서의 평등, 여성의 보다 나은 교육, 직업활동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1865년 루이제 오토 페터스, 아우구스트 슈미트, 리나 모르겐슈테른, 헨리에테 골트슈미트가 만든 '범독일여성연합(Allgemeine Deutschen Frauenvereins)'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선두로 교육, 직업 등 여성이 처한 사회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중에는 노동여성연합들이 포함되었다.

여성운동 내의 계급 대립

이들 노동여성연합은 당시 지배관계를 공격하며 사회적 평등을 첫째 목표로 내세웠는데 그 결과 강제 해체되고 구성원이 체포되는 수난을 자주 받아야 했다. 이러한 노동여성들의 여성운동은 시민계급여성들의 운동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시민계급여성연합은 정치적 해방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남성의 기득권 세계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1894년에는 모든 여성단체들의 결집단체로서 독일여성단체연합회(Bund Deutscher Frauenvereine)가 생긴다. 이때 많은 시민계급 여성단체들이 노동여성을 배제시킴으로써 여성운동내에서의 계급적인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AGISRA (국제 성·인종 착취 반대그룹)이 동남아 여성의 상업적 거래와 매춘화에 반대하며 프랑크푸르트 공원에서 시위하는 장면. (88년 11월 25일)

시민계급 여성운동의 지도자인 아우구스트 슈미트, 헬레네 랑에 등은 정치적 중립을 고수했다. 반면 급진적 성향의 아니타 아우그스부르크, 헤르빅 뚸 등은 반체제의 입장에서 여성의 선거/피선거권을 요구하고 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또한 노동여성들의 대변자인 클라라 제트킨도 평화 투쟁을 전개했으며 전쟁 중 군수산업에 투입됐던 여성들도 태업·시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전쟁종료를 요구하는 단식데모와 군수산업 강제노동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였다.

여성의 의회진출

1차대전이 끝나자 보수적인 분위기가 여성의 생활을 지배했다. 전쟁에 참가했던 남성들이 귀환하자 여성들은 직업활동에서 물러나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성들은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고립되고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의 기량을 쌓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보수정당에 표를 던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전후의 반여성적 분위기가 고조되던 속에서도 여성들이 1918년 선거/피선거권을 얻고 1919년 최초로 41명(9.4%)의 여성의원인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라는 전후시기의 반여성적 이데올로기를 이 시기의 경제공황과 가톨릭 교회가 더욱 부채질했다. 경제공황은 여성들을 일자리에서 우선적으로 내몰았고 가톨릭 교회는 가부장적 위계구조를 위해 여성들에게 직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당시 여성단체 역시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 1백만의 회원을 자랑하던 여성단체 연합이나

여성법률가들도 19세기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여성관

이 시대 지배적인 여성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가정일'로 못박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국가 사회주의 독일노동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의 여성관이 이 시대의 반동적인 여성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히틀러는 "여성의 세계는 남편, 가족, 자녀, 집"이라고 규정하고 피벨스 역시 '여성의 임무는 자녀 생산'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에 따르면 "독일여성의 역할은 우수한 독일민족의 생산, 양육"이고 미혼여성 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기혼여성은 열등한 존재라는 것.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여성에게는 법적 결혼 이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국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들의 전쟁반대 시위. 위의 글은 크리스타 볼프의 <카산드라> 중의 일부. 반전 교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라는 요지.



나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931년 여성단체들은 국가사회주의여성단(NS-Fruenschaft)이나 독일여성공사(Deutsche Frauenwerk)로 통합되어야 했다. 그 외의 범독일여성연합 같은 민간 여성운동단체들은 해체되어야 했다. 이같은 현상은 여성운동조직이 반여성적인 나치의 통치에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치시대의 이 양대 통합 여성단체는 회원이 3백3십만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대 조직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모든 여성들이 전쟁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전락했다. 1차대전 때와 같이 전쟁반대나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여성들도 소수 있었으나 킬로 헤어만이나 대학생 소피 솔 등과 같은 여성지도자들은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당하고 많은 여성들이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나치치하의 국가사회주의 여성단은 해체되었다. 1949년 5월 독일연방공화국이 출범하기까지 베를린을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단체들은 동·서분단과 함께 새로이 구성되어야 했다. 50년대 여성들은 패전독일을 복구하는 데 동원되고 또다시 가정내 역할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여성관이 지배하는 가운데 1961년 신설된 보건부에 최초의 여성장관이 임명되었다.

소그룹 중심의 자율적 여성운동

68학생혁명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68년 9월 프랑크푸르트 대강당에서 여학생 대표가 연설 도중 남학생들로부터 토마토 세레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역학생그룹이던 사회주의 독일학생연합(SDA)의 대의원의회에서 여학생은 '권위적 사회의 혁신을 피하면서도 조직내부에서 가부장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통렬히 비판하자 남학생들이 반발의 표시로 토마토 세레를 퍼부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진정한 의미의 여성운동이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다. 베를린의 '여성해방을 위한 행동위원(Aktionsrat für Befreiung der Frauen)',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대학 여학생들이 중심이 된 '여성위원회(Weiberrat)'는 노동여성, 가정주부 등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의식계발을 과제로 하여 소그룹 운동을 펴나갔다. 이러한 소그룹 운동은 독일여성

운동의 특색으로 꼽히는 "자율적인 소그룹 운동"의 기틀이 된다. 또 '빵과 장미(Brot and Rosen)' 그룹은 이때부터 임신중절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여성상담을 통한 문제제기에 운동의 초점을 두었다.

77년에는 두 개의 여성해방 언론지가 생겨났다. 77년 1월 알리스 슈바르처가 중심이 돼 창간된 <엠마(EMMA)>는 한달 먼저 창간된 <쿠라주(COURAGE)>와 함께 창간된 지 얼마 안돼 정기독자수와 발행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엠마>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이라는 명제를 내걸고 여성해방운동의 논의와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슈테른>지의 선정성 고발

이들 여성지들은 여성차별 문제를 대중여론화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유도하기도 했다.

유수 주간지인 <슈테른(Stern)>지에 대한 고소, 시위 사건이 그 한 예. 독일전역에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 <슈테른>지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표지에 게재하고 유흥가 특집이라는 기회로 매춘여성들의 적나라한 사진을 실었다. <엠마>의 편집장인 알리스 슈바르처를 비롯해 루이제 린저, 영화배우 겸 감독인 마가레테 폰 트로타, 그외 학생, 사회당 여성정치인 등 10인의 여성들은 <슈테른>지의 편집진을 여성의 상품화에 대한 항의로 고소하고 가두시위등 대중행동을 벌였다.

이 여성지들은 대도시나 대학도시에서 생겨난 여성을 위한 정기간행물과 여성해방이론서 전문출판사, 여성서적 전문책방이 생겨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독일여성운동의 새로운 시대는 미국의 여성운동이 주로 커다란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과는 달리 작은 집단이 작은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문적, 자율적 여성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수자 (35) 이화여대 시청각교육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서 석사학위(여성학)를 받은 후 여성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대 박사과정에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주제로 공부 중이다.